

봄、

봄이 血管 속에 시내처럼 흘러
돌, 돌, 시내가차운 언덕에
개나리, 진달래, 노—란 배추꽃、

三冬을 참아온 나는
풀포기 처럼 피어난다。

즐거운 종달새야
어느 이랑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。

푸르른 하늘은
아른, 아른, 높기도 한데……

봄

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
돌, 돌, 시내 가차운 언덕에
개나리, 진달래, 노—란 배추꽃

삼동을 참아온 나는
풀포기처럼 피어난다.

즐거운 종달새야
어느 이랑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.

푸르른 하늘은
아른, 아른, 높기도 한데……